

순위도(巡威島) 소나무들은 왜 울울창창하게 자랄까?

글 | 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황해도 북쪽에는 '순위도(巡威島)'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는 소나무 숲이 있는데, 다른 데 있는 소나무들 보다 울울창창하기로 이름 높습니다. 송충이 등의 병충해도 입지 않고 말라 죽지도 않는답니다.

순위도 소나무들이 이처럼 잘 자라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순위도에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몹시 가난하여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돈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약하여 잔병치레가 심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니!”

총각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호강 한번 못하고 이렇게 가시다니요. 엉엉엉. 어머니, 죄송해요. 이 못난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총각은 밤낮없이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빨리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좋은 자리에 모셔 드릴게요. 거기서 평안히 쉬세요.”

총각은 어머니를 명당자리에 모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에 명당자리를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못자리를 쓰려면 지관을 만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어느 지관이 내게 명당자리를 잡아 줄까?’

지관을 모셔 모려면 많은 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총각에게는 지관을 모셔 올 돈이 없었습니다.

총각이 장례도 못 치르고 받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름난 스님인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순위도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두 분을 찾아뵙고 어머니를 모실 명당자리를 잡아 달라고 청해 보자.’

총각은 수소문하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묵고 있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대사님들, 처음 뵈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묘를 써야 하는데, 명당자리를 하나 잡아 주십시오.”

총각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는 가난한 처지를 말하고, 어머니를 위해 명당자리를 구해 달라고 간절히 청했습니다.

“효심이 지극한 효자로구나. 못자리를 구하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니 우리가 도와주지.”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자리를 구해 주마.”

두 대사는 총각의 청을 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펄 듯이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대사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고 싶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우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당연하지요. 명당자리를 잡아 주시는데…….”

“좋아. 그럼 내일 낮 모시(삼오 11시부터 하오 1시까지)

에 하관(下棺)을 할 테니 준비를 하도록 해.”

“예, 알겠습니다. 참! 못자리는 어디에 잡아 놓으시죠?”

“응, 저 바다 밑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총각은 대답은 이렇게 하고 두 대사와 헤어졌지만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바다속에 묻는다고? 말도 안 돼. 명당자리도 좋지않아 어머니를 차가운 바다 속에 묻을 수는 없어.’

총각은 고민스러웠습니다. 두 대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 뜻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지?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할 수 없고…….’

총각은 밤새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웁지, 이렇게 하자. 두 대사님이 시키는 대로 장례를 치르긴 치르되, 광 속에는 소나무 토막을 집어넣는 거야.’

총각은 새벽녘에야 이런 생각을 하고 광 속에 어머니의 시신 대신 소나무 토막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튿날, 총각은 광을 메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두 대사가 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그럼 시작해 볼까?”

두 대사는 바다 앞에 나란히 서서니 한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심기하게도 바닷물이 바다 저편으로 뿔뿔이 질려 물러갔습니다.

‘와, 도저히 높은 스님들은 다르네. 썬물 때도 아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총각은 너무 놀라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바닷물이 물러가자 그 자리에 너럭바위가 하나 드러났습니다. 두 대사는 너럭바위를 향해 다가갔고, 총각이 광을 메고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두 대사는 너럭바위 앞에서 저마다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팡이로 너럭바위 위에 광보다 조금 크게 줄을 그었습니다. 두 대사는 또 주문을 외웠는데, 놀랍게도 광 하나만 들어갈 만하게 바위가 푸깅처럼 열렸습니다.

그 다음엔 그 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별안간 확 한 마리가 튀어나와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총각은 눈을 비비며 바위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공벌 찬란한 못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산대사가 지팡이를 세워 그림자를 늘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됐다. 오시가 시작되었어. 바로 하관을 하자.”

총각은 서산대사가 시키는 대로 못자리에 광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명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어머니를 모셨으니 편안히 쉬실 거야. 그만 푸깅을 걸자.”

사명대사는 지팡이로 바위를 가볍게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푸깅이 저절로 떨어져 너럭바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대사는 바다를 향해 다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저만치 물러나 있던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가자.”

세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물으로 돌아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바닷물이 어느새 돌이켜 예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총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두 분 대사님이 잡아 주신 저 바다 속 못자리가 명당이었어. 난 공연한 의심으로 명당자리를 놓치다니…….’

총각은 뒤늦게 두 대사에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동시에 탄식했습니다.

“의심이 마귀로구나. 공연히 일을 그르쳤어.”

“저의 잘못입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명당자리를 잡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총각이 이렇게 청하자 두 대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기회는 한번뿐이야. 네 복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겠는가?”

“운명이라 생각하고 물이 잘 빠지는 양지바른 언덕에 어머니를 모시도록 해. 세상일이 생각하기에 달려 있지 않는가. 어머니를 모신 땅을 명당이라 생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명당이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당자리에 소나무 토막이 묻혔는데, 다른 일은 없겠습니까?”

“없을 리가 있겠나. 앞으로 순위포의 소나무들은 송충이 피해도 입지 않고 말라 죽지도 않을 거야. 언제나 울울창창하게 잘 자랄걸.”

두 대사의 세언대로 순위포의 소나무들은 명당 기운을 받은 탄인지 송충이가 송잎을 갉아먹지도 않고 말라 죽지도 않으며, 언제나 울울창창하게 잘 자랍니다.